

한양대/성동구 주변의 먹고 마실것 - 주관을 중심으로 (스압주의)



2022.02.17. 22:10 조회 260

댓글 8 URL 복사

들어가며-

흔히 올라오는 대중적인 픽들은 딱히 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의외로 별로인 곳도 종종 있고요.
뭐, 겁칠수도 있지만요.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학점과 돈과 간을 산화시킨 한 선배의
식도(食道), 구경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학번이신 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후배놈의 잘 못쓴 글 지적 감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비싼 곳들이 많습니다. 유념해서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많이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갤러리를 뒤지는것은 매우 귀찮은 행위입니다)
+ 글의 주어 서술어 호응이 좋지 않습니다. (필력이 구림)

한양대역 근처 -

아마 대면 수업을 한다면 이곳에 자주 들를 겁니다.

카페(프렌차이즈는)
스타벅스, 탐앤탐스, 흥신소, 투썸플레이스가 있는데

여러명에서 다같이 공부하기에는 탐앤탐스가 괜찮습니다 (예약석)
아니면 흥신소 3층도 괜찮고요.

혼자 공부는 어딜 가든 괜찮은데, 투썸이 개인적으로 의자가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 여러 스팟을 찾길 바랍니다.

1. <모음>



사장님이 혼자 하시는 양식당입니다.

와인, 스테이크, 파스타, 기타 양식들을 취급합니다.

좁지만, 분위기가 있고, 맛도 수준급입니다. 가격도 조금 꽤 있지만요. (좀 셉니다 가격이)
이동네에 양식집이 여러 곳 있는데, 베스트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에 심파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폐업을 ㅠㅠ)

보통 성수동, 서울숲 식당가는 감성에 맛을 팔아먹은 이상한 집들이 꽤 많지만,
이곳은 딱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와 첫 데이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CC를 하신다면 이곳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2. <밸런스버거>



요즘 다른 수제버거집들이 여럿 생겼다는데, 한양대역 주변에는 이곳이 제일 괜찮은 듯 합니다.
가성비도 괜찮고, 맛도 좋고, 음료수도 무한리필입니다.

한양대 학생증을 제시하면 감자튀김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3. <우동가조쿠>





일본식 우동집입니다. 맛이 준수합니다. 간단히 한 끼 하기 괜찮습니다.

왕십리역 6번 출구 -

1. <운우>



이자카야입니다.

혼술하기도 좋고, 삼삼오오 사시미에 비싼 술(하이볼, 사케, 증류주 등..) 곁들여 분위기 내기 좋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술과 해산물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왕십리에 이런곳이 있다는게 좋을 따름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강추 드립니다.

2. <괜지스>



21학번 다른 동기분들이 앞에 계십니다. ㅎㅎ

인도 요리집입니다. 미리배움터가 끝나고 (TMI : 한양대역이랑 학교건물 가까운거 믿었지만 1공 2공 헛갈려 지각함 ㅎㅎ) 다른과 20학번 선배님의 추천으로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자주 심심하면 들르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왔으면 커플 세트를 꼭 시켜야 합니다.

탄두리띠까 6pcs + 플랫브래드, + 난 + 커리 맛 선택 + 밥 무한리필의 구성입니다.

커리도 맛있고, 무엇 하나 모자란 메뉴가 없고, 알차고 배부릅니다.

추가로 이곳에서는 라씨(인도식 요?거트) 를 꼭 후식으로 시켜 드시길 바랍니다. 맛이 좋습니다.

분위기도 인도풍이라 좋고, 인도음식에 거부감이 없다면 감히 추천드립니다!

3. <one맥주창고>



인스타에서 사진을 긁어왔습니다. (대충 위스키가 많다는 소리)

이름은 맥주창고이지만, 진, 데킬라, 보드카, 리큐르, 특히 위스키를 많이, 주로 파는 업장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위스키 한잔 즐기기도 좋습니다.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요. (양주치고) 초심자도 가볼만 해요!

가보시기 전에 인터넷에 메뉴판 검색해서 어떤걸 마셔볼지 고민해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팀메리>



그릭 요거트 집입니다.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지만,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왕십리역-한양대 왔다 갔다 하실때 한번쯤 들를 만 합니다.

5. <샐피>



피자 맛집입니다. 장사의신 유튜브 보고왔다고 하면 음료수 한잔 서비스로 줍니다. (골목식당 매운맛 버전 유튜브 채널인데 은근 볼만 합니다 ㅋㅋ)

분위기도 좋고 피자 맛도 좋아서 피맥 한번 하고 가기 좋습니다 ㅎㅎ

6. <낙원스넥>





또 피자집입니다. 이곳도 괜찮습니다. 수제맥주 등을 다양하게 팔아서 여기도 피맥하기 괜찮은 곳입니다. 샬피보다는 맥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샬피는 테라랑 블랑 두개밖에 없어서 아쉬운데 여기는 이것저것 많이 팔아서 좋습니다. (민중검사가 상당히 짹쌉니다.)

7. <알촌>



알밥집입니다. 가성비 괜찮습니다.

돈이 궁할때, 전날에 술을 마시고 왕십리 밖으로 약속 나갈때 들르는 곳입니다.

필자의 여러가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

그중 하나의 TMI ssul이 있는데

왕십리 거리에 처음 와서 알촌을 찾으려 했으나 지도에 검색하면 알촌 부동산, 알촌 시스템 이런데만 나와서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기어이 도착한 가게에서는

진매알밥이 진짜 매움의 줄임말인줄도 모르고 무작정 시켰다가 눈물을 머금고 반절 남기고 도망쳐 나와 우동가조쿠로 도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매(약간 매움) + 치즈 추가 조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8. <치폴레옹>



역시 필자의 과거 감성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치킨 스테이크 + 밥집입니다.
양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맛은 준수하고
간단하게 점심식사로 한 끼 하기 괜찮습니다.

왕십리오거리, 행당시장 근처

이곳에 은근히 숨겨진 맛집들이 참 많습니다.
스크롤을 빨리 내리지 말고 천천히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양대와 좀 먼 편입니다)

1. <돈가스전원>

이곳은 왕십리에서 제일 자주 간 맛집 TOP5에 드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경양식 돈가스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맛이 없습니다. 소스맛 으로 고기를 먹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고기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식 돈가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왕십리역 1번출구에 나와서 상왕십리쪽으로 좀 걸어야 합니다.

별로 돈가스 안먹었었는데, 여기를 방문하고 "아 내가 돈가스 좋아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일식 돈가스 집입니다.

기름지지 않습니다. 고기가 맛있습니다.

소스에 찍어먹기 아까워 소금과 겨자를 적절히 뿌려 드시길 바랍니다.

웨이팅이 좀 긴 편이니 오픈 일정에 맞추어 일찍 가시길 바랍니다. 인스타에서 오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링 앱으로 미리 줄서기도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감동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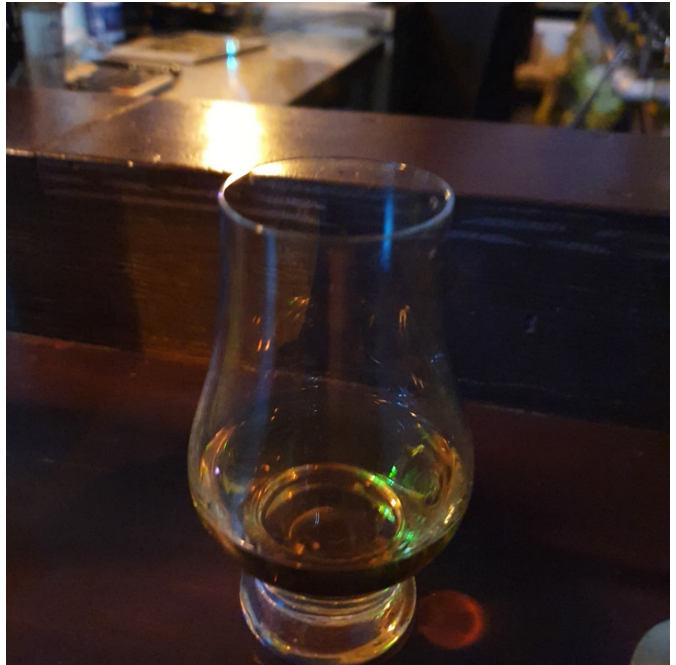
된장국에 고기가 들어있어 든든합니다.

밥 더달라하면 더 주십니다.



레몬즙을 한 방울 뿌려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소스를 찍어먹기 아깝습니다. 사진은 안심입니다.

2. <아맘>



행당시장 깊숙히 들어간 곳에 위치한 작은 주점입니다. 안주가.. 수준급 입니다. 분위기도 단란하고 사장님이 친절하십니다. 각종 전통주들이 많고, 사장님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술과 안주, 분위기 모두 합격입니다... 꼭 한번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꼭 한번 방문하길 권합니다. 제대로 마시려면 5만원 정도는 들고 가셔야 합니다.

인스타 맛팔은 필수입니다.

3. <고기를 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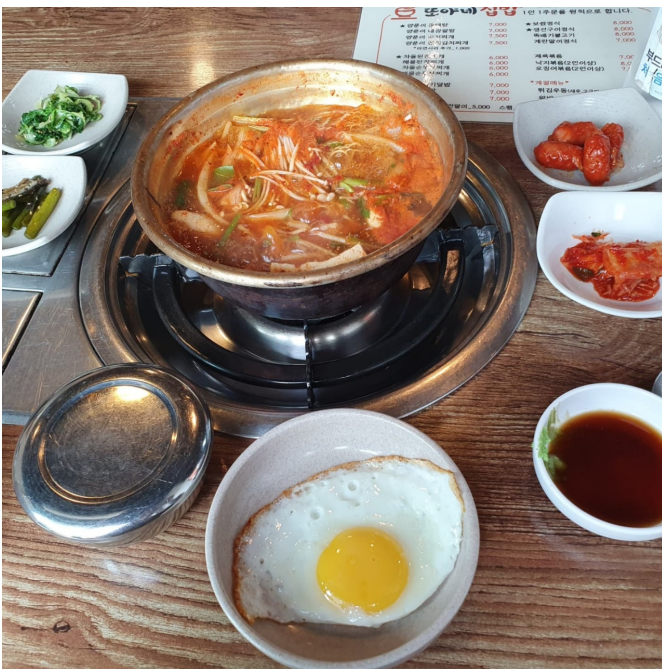
가게 입구, 고기들이 숙성되고 있다.



왕십리역 8번출구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십리에서 제일가는 돼지고기집이라고 감히 예측합니다.
 유튜버 <정육왕>이 극찬한 고깃집입니다.
 사장님이 고기에 진심이십니다.
 각종 부위들 뿐만 아니라 밑반찬, 양념(특히 멜젓) 이 수준급입니다.
 알바분께서 고기를 구워줍니다. 분위기도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양대 구경 후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꽤 셉니다..)

4. <또야네 보쌈&아구찜 >



점심에는 백반집이었다가, 저녁때는 아구찜 집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아구찜은 안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리뷰에 의하면 침착맨 & 소삼이 추천해준 맛집이라고 합니다.

각설하고, 주목해야 할건 점심 메뉴들입니다.

알탕의 가성비는 미쳤고(보이는 것이 1인분 7천원. 어떻게 소주를 안참아?), 생선구이도 맛있는 편입니다.



(TMI) 위쪽 표시가 고기를 품다고, 아랫쪽 표시가 또야네 집밥입니다. 굳이 사진을 첨부해 인근 공원을 빨간색으로 둘러싼 이유는 공원이 평화롭고, 북적거리는 왕십리와는 다른 또다른 여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밥먹으러 갈때 들러 보시길 바랍니다. 거리도 뭔가 지방 느낌나서 좋습니다. (제가 촌사람이라 그럴지도.)

5. <봉평골메밀막국수 행당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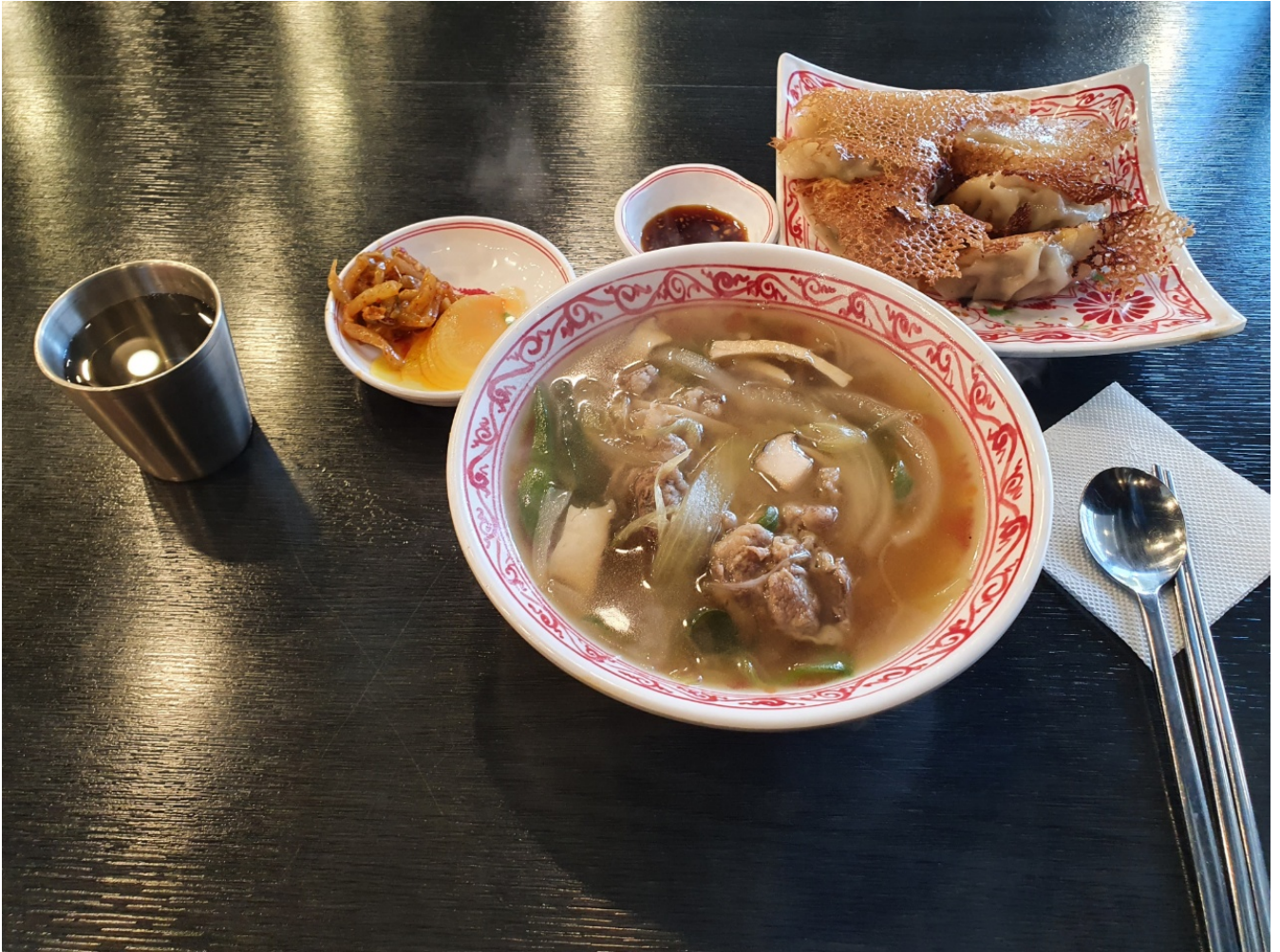
여기는 성동구청(기숙사에 입소하시면 코로나 검사를 보통 이곳에서 받습니다.)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지, 메밀전병, 막국수가 땡겨서 한번 방문 해봤는데 맛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써
 봅니다.

6. <수상한막창 >



왕십리역 10출 근처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과 사람들이랑 종종 가는 막창 맛집이었는데
 동기들과 어느 날 방문해 알바와 사장님의 서비스의 괴리를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 연유로 추천하기 조금 두렵습니다만
 사장님이 서빙으로 걸리면 서비스 좋게 맛있게 먹을수 있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7. <춘향미엔>



행당시장에 위치해 있는 중국식 면집입니다.

온면 가성비 괜찮고, 만두가 실해서 두명이서 갈때 사이드로 하나 시켜서 나눠먹기를 추천드립니다. 맛은 준수한 편입니다

사근동

기숙사 근처 동네입니다. 동네 질이 썩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위생 논란의 업장이 좀 있습니다. 누가 고소하면 곤란하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바퀴벌레와 양아치 원룸업자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숙사 근처니까 맛집 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기숙사 살면 알아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군데만 소개해보도록 하죠.

1. <미네스키친>



라멘이 참 맛있습니다. 토리빠이탄+닭다리 세트. 꽤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부추와 고추가 적당한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닭다리는 찢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발라먹기 귀찮거든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기왕 왔으면 닭다리 추가를 감히 권합니다.

부추, 고추, 적당한 국물, 고기와, 닭다리 살, 면을 얹어 숟가락에 담아 미니 라멘을 먹는 방식으로 저는 라멘을 먹습니다. (어떤 만화에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용담, 답십리동

2생활관에서 청계천 건너면 용담역이라는 2호선 지선 역이 있습니다. 청계천 산책할 때 이동네를 들르면 좋을 듯 합니다. 옛날 전통시장 느낌이 좀 납니다. 이곳도 맛집이 꽤 있습니다.

좀 더 걸어가면 답십리역 투썸플레이스가 있는데 공부하기 좋은 스팟입니다.

건너가는 다리가 꽤 좋은 사진 스팟입니다. 인생 샷 건져보는것도 좋습니다.

1. <기연각>



중식당입니다.

사장님께서 꽤 요리에 자신이 있으신 편입니다. 기숙사 사시거나, 근처 자취하시면 강 건너 와볼만 합니다.

기타 메뉴들도 맛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해물짬뽕을 먹었습니다.

뭔 해물짬뽕이 만육천원이나 하나는 핀잔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정상가격의 일반 짬뽕도 존재합니다.),

풍부한 해산물과 깔끔한 국물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중국집의 기준은 먹고나면 속이 찌꺼분하지 않은 곳인데
런 가게에 해당합니다.

2. <깨비곱창>



청계천 다리를 건너 용답역을 지나치면 바로 곱창집들이 즐비합니다. 주로 야채곱창을 취급하는데, 곱창치곤 가성비 비
쌌습니다. 홀에서 먹는것보단 포장해서 야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3. <목포식당>



밥집입니다. 보리밥 정식이 꽤 가성비가 좋습니다. 2명이서 가서 생선구이 + 보리밥 조합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꽤 맛있는 편입니다. 용담 근처 살면 한번쯤 가보시길 바랍니다.

4. <소문난순대국왕족발>



사근동 쪽에 참진한 순대국이라는 순대국집이 있는데, 스타일이 둘이 조금 다릅니다. 직접 먹어보시면 압니다.

가격도 착하고, 순대 족발, 오소리감투 등의 것들을 취급합니다. (취급하는 것들이 꽤 근본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빨뚜에 여러 안주와 국밥을 하십니다. (인기가 있다는 뜻이죠)

오소리감투가 맛있습니다.

마치며

아주 긴 똥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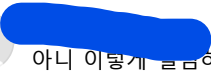
이곳저곳 도전하며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후배들이 질문을 걸 수 있는데
??? : 보통 포차나 일반 술집들도 알려주세요 !!

그건 이제 선배들이 알아서 왕십리 근처로 대려다 줄테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즐거운 한양대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등록순 최신순



  : 아니 이렇게 길게 댓글 쓰시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ㅋㅋ
2022.02.17. 22:14 답글쓰기



  : 아답니
2022.02.17. 22:20 답글쓰기



  : 와 나!!!
2022.02.17. 22:43 답글쓰기

  : 감사합니다
2022.02.18. 17:09 답글쓰기

  :
2022.02.18. 00:53 답글쓰기

  : 멍충충
2022.02.18. 17:09 답글쓰기

  : 우왕 이렇게 도움되는 설명글을 올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선배님~~ㅎㅎ
2022.02.19. 00:45 답글쓰기

  :
2022.02.19. 00:45 답글쓰기

